

나는 좋은 클라이언트가 되고 싶었다

—학동 수졸당기—
Description of Hak-dong
Sujol-dang

유홍준
미술평론가 · 영남대교수

집의 저작권과 사용권

학동 수졸당(鶴洞 守拙堂)은 나의 집이다.
내가 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 내 처와 아들들과 함께 살아갈 새 집을 TSC의 승효상에게 설계의뢰하여 삼협건설에서 시공한 집이다.

그러나 나는 수졸당을 나의 집이라고 부르지 않고 “승효상의 집”, 정확하게 말해서 “승효상이 지은 집”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유인즉, 이 집의 재산권은 물론 내가 갖고 있지만, 저작권이라는 말을 여기서 쓸 수 있다면 저작권은 승효상에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수졸당을 팔고 판 데로 이사갈 수도 있지만 승효상이 지었다는 사실은 이 집이 헐리지 않는 한 계속되기 때문이다.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 내 소견이 그러했기 때문에 나는 이 집의 설계에서 시공까지 모든 것을 승효상에게 위임하였고, 나는 단지 내가 원하는 사항, 달리 말하여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가족이 생활하는 터전이기 때문에 가족구성과 취향이 어떻다는 사실, 노부모님께서 모두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 내 직업이 교수이지만 직장은 대구에 있는 주말부부이고 서울에 연구실이 따로 있어서 별도의 서재가 필요치 않다는 사실, 우리집에는 오밤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다는 사실 등등만 알려 주었을 따름이다.

주택의 보편성과 우리 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졸당의 설계 · 시공 · 감리를 내가 철저히 승효상에게 위임했던 것은 사실 승효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다. 세상에는 직업이 여러 종류가 있고, 전문가라는 사회적 대우가 생긴 것은 그 나름의 이치가 있는 법인데 내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더욱이 설계비를 지불하고 건축가에게 의뢰하면서 내가 아래라 저래라 참견한다는 것은 바보같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골아픈 일을 없애기 위해서 건축가에게 부탁하는 것이 주택의 설계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의 이런 태도를 별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사실 나의 태도는

약간 별스러운 것이었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된 데에는 특별한 개인적 경험이 있었다.

마산 양덕성당의 박신부님

1978년 어느 날이었다. 「공간」편집부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내가 커피숍에서 쉬고 있는데 한 외국인 신부가 내게 와서 “설례합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마산에 있는 박기홍 신부라고 합니다.
나는 새로 성당을 짓게 되어 김수근 선생을 뵈러
왔는데 좀 안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박신부를 모시고 3층 김선생님 집무실로 안내했다. 김선생님은 내 얘기를 듣더니 함께 앉아서 얘기하자는 것이었다. 박기홍 신부는 먼저 말을 꺼냈다.

“저는 오스트리아 태생으로 마산 주교좌 성당에 있는 박기홍 신부입니다. 지금 양덕동에 새로 성당을 짓게 되어 김선생님께 부탁드리려 왔습니다. 나는 특별한 아이디어도 별 조건도 없습니다. 김선생님 생각대로 성당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김수근 선생은 이 신기한 클라이언트를 맞으면서 입을 떡 벌리면서 나를 쳐다보더니 빨리 승효상을 불러 오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박신부는 김수근, 승효상, 나 세사람 앞에서 말을 이어갔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옛 성당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성당을 지어주십시오는 말씀 뿐이 없습니다. 서양에서 고딕시대에 고딕풍의 성당이 있듯이 20세기 한국의 성당답게 지어주십시오. 다만 새로 지을 성당은, 성당이니까 누구든 편하게 들어오고 싶어 하게 지어주십시오. 내가 준비한 자금은 모두 1억원이니 그 예산에서 지어주십시오.”

그밖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있다면 양덕동은 지금 발전하고 있는 동네여서 앞으로 5층건물이

많이 들어설 것 같으니 그것만 고려해
주십시오.”

박기홍 신부가 말을 마치자 김수근 선생은 생전에 최고 가는 클라이언트를 만났다고 좋아하시면서 저런 클라이언트가 많이 나올 때 우리 건축문화는 살아난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나 역시 놀라움 속에 박신부의 말을 들었고, 언젠가 나도 저처럼 좋은 클라이언트가 되고 싶었다.

우리 건축계의 구조적 불행

「공간」에 근무한 2년이라는 세월은 나에게 건축에 대하여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주었고, 오늘날까지 미술평론을 하면서 관심의 한 부분으로 지니게 하였다. 나는 건축에 대하여 이렇다 할 글을 쓴 일도 없고 앞으로도 쓸 의사가 별로 없지만, 나라도 나서야 할 때라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랬던 적이 있다.

정확한 날짜는 잊었지만 세상에 「김원씨 사건」이 있었을 때 나는 중앙일보에 「건축가와 건축사」라는 제목아래 장문의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나라 건축사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김원씨 편을 든 글이었다. 그때 나는 우리 건축계의 구조적 모순을 낱낱이 열거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말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 건축계의 구조적 모순보다도 ‘우리 건축가들의 구조적 불행’이다. 그 불행이란 건축가들이 ‘집, 주택을 지어볼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다. 거짓말 같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나의 생각에 주택은 건축의 기본이고 시작이다. 또 주택은 건축의 꽃이며, 건축의 종점이다. 주택은 건축의 알파요, 오메가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건축가들은 주택건설을 모두 ‘집장사’들에게 빼앗겨 버렸다. 억울하게 빼앗겼건 명청하게 빼앗겼건 건축가들은 좀처럼 주택을 설계해 볼 기회를 갖지 못했고, 또

못하고 있다.

어쩌다 기회가 닿아 위촉받은 주택들은 대개 호화주택, 전원주택, 별장 등이며 대지는 번듯한 남향받이거나 널찍한 것이며 공사비는 집장사집의 2,3배를 넘는 것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축가의 집은 호화주택이고, 호화주택이나 지어야 건축가에게 의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제다가 건축가들은 새로운 것, 개성적인 것, 즉 작가정신을 앞세우는 바람에 기능적인 것, 실제적인 것을 곧잘 무시하여 실용과 기능이라는 면에서는 거의 무지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생각도 팽배하게 되었다. 실제로 수출당을 짓는 과정에서 내 주위의 친구와 선배들 중에는 “건축가에게 맡겼다는 집 못쓰게 된다”고 심각하게 충고한 분이 적지 않다.

대한의 건축가들이여!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그것이 세상의 민도가 낮아서만 생긴 일이겠는가? 이런 무지막지한 폭력적 발언에 건축가는 책임질 부분이 과연 없었던가?

그래도 나는 건축계를 조금 알기 때문에 건축가 편을 들고 싶다. 세상사람들아! 건축가에게 주택 지어볼 기회를 언제 주어 보았더니! 주택설계를 부탁할 만한 사람들은 모두 맨션아파트와 호화빌라로 기어들어가고 말았으니 말이다.

주택의 재산가치와 사용가치

건축가들이 일반주택을 지어볼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구조적 불행은 한국사회의 부동산파동에 큰 원인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지금 사람들은 주택이라고 말하면 그것의 사용 가치는 젖혀두고 재산가치부터 말하고 생각한다. 내가 건축가가 설계한 집을 지었다는 사실을 처음 듣는 사람은 대뜸 ‘돈을 무척 벌었구나’, ‘몇 억짜리가 되나’, ‘앞으로 재산공개하면 공직생활 못하겠구나’하고 나온다. 심지어는 이 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거의 악의적으로 ‘유아무개가 강남에 20억짜리 집을 짓는다’는 말까지 내 귀로 들었다. 그런 중에 나는 어느 한 사람 설계자가 누구냐고 묻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또 나의 처신을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 모두가 나의 호사취미로 인식하면서 겸소하지 못한 형태로 말들 하고 있었다.

사실 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기에 처음엔 건축가에게 부탁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나의 처와 아버님은 다른 이유에서 그럴 의사가 없었다.

나는 6남매의 장남으로 1975년에 결혼하여 휘경동 아버님댁 건너방에서 신혼생활을 보냈다. 첫 아들을 낳고 결혼 2년째 되었을 때 나의 어머니는 우리 살림을 따로 낼 뜻을 말씀하셨다. 나와 내 처는 반대했지만 어머님의 뜻은 단호하였다.

“지금 세상에 누가 며느리 시집살이를 시키겠나. 집장만해서 살림내주지 못해 미안하다만 너희들 사는 건너방 전세주면 40만원 받으니 그것으로 살림내어 너희끼리 살아라.

내가 처음부터 살림을 내주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며느리를 새 식구로 맞으면 같이 생활을 해봐야 내 식구가 되겠으니 그랬고, 둘째는 어차피 늙으면 결국 너희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처음부터 따로 살면 내가 늙어 너희들에게 기어들어가 엉혀사는 꼴이 되지만 2년이라도 함께 살다 합치면 너희들이 나를 모셔가는 형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셋방살이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세월이 20년 흐르는 사이에 부모님 모두 70세가 되었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지병이 생겨 대학병원에 달마다 통원치료를 하시게 되었고, 직장운이 꽤 좋았던 아버님도 작년에 정년퇴직하셨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모실 때가 온 것이었다.

그러나 상도동 아버님댁도 학동(지금은

행정개편으로 논현동에 편입됐음)의 나의 집도 여섯식구가 살기에는 좁은 곳이었다. 두 집을 합쳐 큰 아파트로 가는 방법도 있었으나 아파트구조란 3세대가 살기에는 알맞지 않을 뿐더러 두 집 모두 팔릴 기미조차 없었다.

그리하여 학동의 나의 낡은 집을 개축하는 방법을 검토했는데 5천만원 들여도 표도 안 나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아버지와 나의 처는 두 집을 합쳐서 학동의 내 집을 헐고 짐장사에게 전형적인 짐장사집으로 1층과 반지하를 전세주고 2층만 사용하는 “차등식 다세대 주택”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집의 사용가치는 젖혀두고 오직 재산가치, 앞으로 팔 때 생기는 재산의 증식여부만 고려하는 것이었다.

가정에 불충실한 나였지만 특히 부모님집과의 통폐합에 내가 조금도 신경쓰지 않은 것은 나는 재산가치를 불리는 일에는 관심도 전문성도 없기 때문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모르는 채, 못본 채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내 처와 아버님이 나의 무관심을 질책하고 나왔을 때 나는 단호히 집의 사용가치라는 본질론을 들고 나와 학동 내집터에 아버님과 내가 공동부담으로 우리끼리 여섯식구가 ‘행복하게 살 집’을 짓기로 합의보게 되었고 그 전권이 나에게 맡겨졌다.

승효상에게 내건 요구사항

이리하여 작년 4월, 나는 승효상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바쁘지 않으면 내 집 한번 지어보는 것이 어때?”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부탁했고 그는 “좋습니다”라고 명쾌히 대답했다. 며칠 후 나는 승효상을 만나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첫째로, 짐장사보다 싸게 지을 수 있는 집이어야 함.
둘째로, 여섯식구가 살려면 방이 5개 필요한데 건평은 50평 정도로 지을 것, 이것은 돈의 문제보다도 공간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임.

셋째로, 생활하는 기능은 아파트보다 편리해야 함.

넷째로, 집의 분위기는 한옥보다도 아늑하고

공간분할이 유기적이어야 함.

다섯째로, 집의 외형은 화려해서는 안 되며, 조용하고 단순한 가운데 멋이 있어야 함, 예를들면 수덕사 대웅전 측면관 같은 분위기가 좋음.

여섯째로, 대지가 북서향이라 채광 조건이 나쁘지만 집은 밝고 명랑하게 지을 것.

일곱째로, 시공자의 선택도 TSC에서 하고, 감리도 TSC에서 하며 주택의 성패를 끝까지 책임지어야 함.

그밖에는 설계자 구상대로 진행하고 나는 설계에 합의한 이후 절대로 변경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설계과정에서 건물주와 설계자 사이의 의견이 같으면 수정하고, 다르면 설계자 의사로 따를 것임.

이것이 나의 요구조건 전부였다. 그 대신 내가 승효상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따로 제시했다.

첫째로, 설계과정에서 우리집 분위기와 나의 생각을 충분히 드러내주고 언제든 물음에 답할 것임.

둘째로, 설계비는 요구 전액, 즉 공인가격을 지불하겠다.

셋째로, 집의 사용은 건축가의 의장취지에 맞추어 품격을 유지시키겠음.

넷째로, 집이 완성된 이후 설계주문 과정을 세상에 공개하여 앞으로 나같은 클라이언트가 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상이 나의 생각 전부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나의 진짜 속마음 하나는 빠져 있었다. 그것은 집이 완성된 이후 승효상에게 말한 것인데 그는 이미 그 뜻을 간취하고 있었다.

‘당신이 지은 나의 집이 우리시대 일반주택의 한 전형이 되어, 앞으로 많은 짐장사들이 이 집을 본받아 우리시대 주거양식을 새롭게 전환 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단독주택의 한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을 것.’

빈자의 미학과 “서도동기론”

내가 많은 건축가 중에서 나의 집을 승효상에게 의뢰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공간」에 같이 근무하면서 서로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이라는 점, 둘째는 승효상은 고집이 세어 신참내기 시절에도 김수근선생의 카리스마에 –우회적이지만 정공법보다 더 강하게 –대드는 것을 보았던 사실, 셋째는 그의 건축은 ‘끝내기’가 치밀하다는 내나름의 판단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건축적 이상 내지 조형목표가 ‘빈자(貧者)의 미학(美學)’이라는 사실이었다. 승효상이 내건 ‘빈자의 미학’은 학동 수출당을 지으면서 보다 구체적 실체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승효상은 ‘빈자의 미학’을 말하기 이전에는 이문구의 소설『매월당 김시습』을 얘기하면서 ‘청빈의 사상’에 주목함을 내게 말하곤 했다.

승효상의 ‘빈자의 미학’은 그가 논리적으로 풀어나가고, 구체적 작품으로 제시해야 할 그의 과제이겠지만, 나는 그의 건축미학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는 덧붙일 수 있을 것 같다.

그가 말하는 가난과 청빈은 물론 물질적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대단히 정신적인, 어찌보면 고도의 지적 사치도 동반되는 철학적 명제이다. 세상이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간다고 주장하는 판에 그는 하필이면 ‘가난’을 끌고 나왔는가!

승효상은 모더니즘 세대에게 교육받으면서 모더니즘의 세례를 받았고, 이제까지 그의 작업은 모더니즘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승효상은 문화의 기류가 모더니즘이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른 건축가, 다른 예술가, 다른 인문·사회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었다. 이제는 모더니즘 정신 내지 미학 만으로는 현재도 미래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감지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돌파구를 그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닌 빈자의 미학, 청빈의 사상에서 찾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승효상이 이제까지 익혀 왔던 모더니즘의 미학과 정신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만으로는’ 안된다는 뜻에서 청진한 물갈이를 원한 것이었다. 마치도 어항의 물갈이처럼 3분의 1, 아니면 2분의 1 정도 교체였고, 그것이 빈자의 미학, 청빈의 사상이었다.

이렇게 나는 승효상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인 ‘가난의 정신’ 속에는 상당부분 동양의 정신, 전통의 가치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나는 승효상에게 수출당을 지으면서 그의 빈자의 미학이 구현될 수 있는 하나의 방책으로 “서도동기(西道東器)”라는 아이러니칼한 명제를 제시했다.

내남이 모두 알고 있듯이, 동양의 전통사회에 서구문명이 밀려들어 올 때, 뜻있는 지성들은 동양의 정신에 서양의 기술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주장을 해 왔다. 그것이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이다. 지난 1백년 동양의 문화사에서 이 주장은 별스런 성과도 없으면서 그 이상만은 가치있는 것으로 용인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일뿐 실천적 추진력은 이미 상실할 정도로 우리는 서구화 되었고 모더니즘화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말을 뒤집어 ‘서도동기’를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축으로 삼는 것은 현대와 모더니즘으로 하고 거기에 잊어가는 동양의 정신과 전통의 가치를 살려보는 길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승효상에게 생활하는 것은 아파트 구조의 편리함, 분위기는 한옥의 아늑함을 합성하도록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수출당은 승효상의 빈자의 미학이 나의 서도동기론을 여과하여 나오게 된 작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진작가들의 말을 빌면 가장 찍기 어려운 것이 초상사진이라고 한다. 아무리 좋은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자부해도 초상의 당사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 된다. 마찬가지로 건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주택이 된다. 아무리 잘지어도 건물주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건물주에게는 몰가치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가와 건물주는 궁합이 맞아야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건물주는 건축의 완성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 건축의 가치가 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가구와 장식물 그림 화단 등이 건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건축가와 건물주는 더욱더 궁합이 맞아야 한다.

그렇다면 상식적인 말로 돌아가서 건물주는 좋은 건축가를 만나야 좋은 집을 갖게 되고, 건축가는 좋은 건물주를 만나야 좋은 집을 짓게 되니 나는 좋은 클라이언트가 되어 우리 건축계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이 수출당을 짓게 된 내력이다.

학동 수출당

집의 설계가 끝나갈 무렵 승효상은 나에게 집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요구하였다. 앞으로 이 집을 부를 수 있는 공식적인 명칭을 요구한 것이었다.

내게는 아호같은 것이 있을리 없었다.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호(堂號)는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은 것이 수출당(守拙堂)이다.

나는 동양의 여러 경구 중에서 좋아하는 몇 구절을 금과옥조처럼 지니고 있는 것이 있다. 하나는 동기창이 말한 소중현대(小中顯大)로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나타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미스 반 데어 로에가 말한 “작은 것이 많은 것이다(Less is more)”와 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하나는 노자가 말한 대교약졸(大巧若拙)로, “위대한 재주는 별볼일 없어 보인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 나의 집 사랑방에는 ‘소중현대’, 거실에는 ‘대교약졸’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그중 나는 대교약졸에서 나온 말 ‘수출(守拙)’을 빌어 수출당이라고 이름붙였다. 조선시대 문인 중 수출당이라는 당호를 가진 이가 여나쁜 분되지만 그것은 개의치 않기로 했고, 바둑에서 초단을 수출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신경쓰지 않기로 했다. – 허기사 나의 바둑은 아마 초단은 된다.

그리고 지금은 논현동에 편입되었지만 그 옛날부터의 이름이 학마을에서 학리(鶴里)로 되었다가 서울로 편입되면서 성동구 학동이 되고 얼마 전까지도 강남구 학동이었으며, 아직도 학동국민학교, 학동네거리, 학리노인정이 건재하므로 학동 수출당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남은 이야기

나는 지금 학동 수출당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이 집에 입주한 이후 온 가족이 즐겁게 살고 있다. 부모님도 만족해 하셨는데 어머님 말씀이 “우리는 아무 때고 들어갈테니 너희끼리 우선 새 집에서 단란하게 살아보아라. 1년이고 2년 후에 들어가마”라며 아직 이사오지 않으셨다.

집이 완공된 지 꼭 한 달이 된 지금까지 수많은 건축가, 건축학도, 예비 클라이언트가 다녀갔다.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다. 그 귀찮음이란 내가 답사다니면서 남의 가정집, 절집, 안채를 구경했던 업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학동 수출당의 견학과 답사는 나와 내처의 마음으로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촬영은 더욱 말할 것도 없다. 그것은 반드시 TSC의 승효상 허락을 맡아와야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집의 사용권은 내게 있지만 저작권은 TSC의 승효상에게 있기 때문이다. AC